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3

<http://sri.kostat.go.kr>

2023



통계청

통계개발원

가구·가족 영역의 주요 동향

송유진 (동아대학교)

- 혼인과 관련한 많은 변화가 관찰된다. 혼인건수는 지난 2000년 33만 건 정도에서 2022년 19만 건 정도로 감소하였다. 평균 초혼연령은 2000년에 남자 29.3세, 여자 26.5세에서 2022년에 남자 33.7세, 여자 31.3세로 상승하였다. 조혼인율은 세종시가 가장 높고 전북이 가장 낮다.
- 혼인 5년차 초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비율은 2015년 12.9%에서 2021년 22.5%로 높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두드러진다.
- 평균 가구원수와 2세대 가구 및 3세대 이상 가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1인가구와 1세대 가구는 꾸준히 늘어나서 2050년에는 각각 39.6%, 25.0%로 전망된다.
- 전국 평균 가구원수와 비교했을 때, 인천, 세종, 경기, 제주는 평균 가구원수가 많다. 반면, 1인가구와 65세 이상 고령자가구 구성비는 광역도에서 높게 나타난다.
- 미취학 아동은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여전히 어머니가 주 돌봄자이다.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 외에는 어머니를 비롯하여 외조부모와 친조부모 등 가족들이 주로 돌본다.
- 가족에 대한 정의 중 ‘혈연관계’와 ‘법적 연결 관계’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다. 다양한 가족형태가 등장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정의가 보편적인 사회규범으로 여겨짐을 보여준다.
- 노부모와 같이 살면서 부양해야 한다는 가치관은 약해졌지만, 경제적 부양에 대한 가치관은 남아있다.
-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과 자녀를 키우는 것의 경제적 부담과 힘들음 동시에 인식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가구와 가족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는 영역 중 하나이며, 관련된 변화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가족 형성, 가족구조, 가족관계 및 돌봄, 가족 가치관으로 나누어서 가족 및 가구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가족 형성과 가족구조에서는 지역 간 차이에 주목하기 위하여 전국 자료와 더불어 특·광역시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족 형성에서는 통계청의 「혼인·이혼통계」를 활용하여 혼인 및 이혼과 관련된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한 후, 「신혼부부통계」에 근거하여 혼인 5년차에도 자녀가 없는 부부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구조에서는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를 활용하여 시도별로 2020년부터 2050년까지 평균 가구원수, 1인가구와 고령자가구 구성비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전망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가족관계 및 돌봄에서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가족관계 만족도와 성인 자녀-부모의 지원교환관계 및 미취학아동 양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족 가치관에서도 「가족실태조사」를 활용하여 가족을 다양하게 정의하는 진술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더불어 2010년과 2020년



자료를 사용하여 자녀 및 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을 비교하고자 한다.

가족 형성

가족 형성의 변화는 가족 및 가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혼인건수 감소, 평균 초혼연령 증가, 결혼과 첫 자녀출산까지의 기간 지연 등이 지속되면 가족규모의 축소와 다양한 가족구조 등장과 같은 변화로 이어진다.

〈표 II-1〉 혼인과 이혼 관련 추이, 2000-2022

(단, 세)

연도	혼인		평균 초혼연령		이혼	
	혼인 건수	조 혼인율	남자	여자	이혼 건수	조 이혼율
2000	332,090	7.0	29.3	26.5	119,455	2.5
2005	314,304	6.5	30.9	27.7	128,035	2.6
2010	326,104	6.5	31.8	28.9	116,858	2.3
2015	302,828	5.9	32.6	30.0	109,153	2.1
2020	213,502	4.2	33.2	30.8	106,500	2.1
2022	191,690	3.7	33.7	31.3	93,232	1.8

주: 1) 조혼인율과 조이혼율은 인구 1천 명당 건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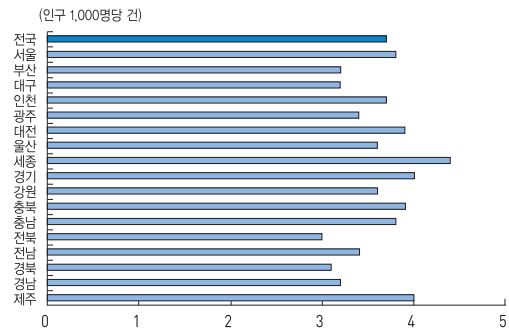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혼인·이혼통계」, 각 연도.

〈표 II-1〉은 혼인 및 이혼과 관련된 기본적인 현황을 제시하였다. 지난 2000년 이후 혼인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 역시 감소하였다. 평균 초혼연령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 남성 29.3세,

여성 26.5세에서 2022년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증가하였다. 이혼건수는 지난 2005년 이후 줄어드는 경향이지만 이는 혼인건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따라 조혼인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서울,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제주가 전국 조혼인율보다 높다. 특히 세종시의 조혼인율이 가장 높고, 전북의 조혼인율이 가장 낮다. 광역시에서는 부산과 대구의 조혼인율이 낮다(그림 I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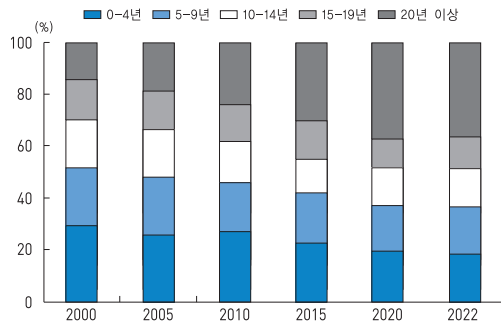
〔그림 II-1〕 지역별 조혼인율, 2022



출처: 통계청, 「혼인·이혼통계」, 2022.

〔그림 II-2〕는 혼인지속기간별로 이혼구성비를 제시하였다.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5년 미만 부부들의 이혼 비율이 높았다면, 2015년부터는 혼인생활 20년 이상인 부부들의 이혼 비율이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 가령 2015년에는 혼인생활 20년 이상인 부부들의 이혼 비율이 29.9%를 차지하고, 이후 2020년과 2022년에는 각각 37.2%, 36.7%를 차지한다.

[그림 II-2] 혼인지속기간별 이혼구성비, 2000-2022



출처: 통계청, 「혼인·이혼통계」, 각 연도.

[그림 II-2]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 집단을 다시 혼인생활 20~24년, 25~29년, 30년 이상으로 구분하면, 3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이혼한 부부의 비율이 2015년 9.6%에서 2022년에는 16.8%까지 증가하여, 황혼이혼이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재혼이나 출산 가능성, 혹은 가구구성의 다양화와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혼인생활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 혹은 황혼이혼의 비율이 높아지면 1인가구로 독립하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다.

혼인건수 감소 및 평균 초혼연령 상승과 더불어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거나 늦게 낳는 경우가 많아지면 가족구성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표 II-2>를 보면, 혼인 1년차부터 5년차까지 자녀가 없는 부부의 비율이 2015년 35.5%에서 2021년 45.8%로 늘어났다. 물론 혼인 1년차에서 5년차로 진행될수록 자녀가 없는 부부의 비율은 줄어들지만, 평균적으로 살펴본

무자녀 부부의 비율이 2021년에 46% 정도인 점은 눈에 띈다.

혼인 5년차 부부 중에서 자녀가 없는 비율을 살펴봐도 2015년 12.9%에서 2021년 22.5%로 증가하였다. 이는 혼인 5년차 부부 중 다섯 쌍 중 한 쌍 정도는 여전히 자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혼인한 지 5년이 지난 후에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평균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혼인 후 일정 기간 동안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면 확률적으로 무자녀 부부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는 또한 1세대 가구 비율의 증가와 연결될 수 있다.

〈표 II-2〉 혼인연차별 자녀없는 초혼부부 구성비, 2015, 2021

지역	혼인1년차-혼인5년차 부부 중 자녀없는 구성비		혼인5년차 부부 중 자녀없는 구성비	
	2015	2021	2015	2021
	(%)			
전국	35.5	45.8	12.9	22.5
서울	42.7	53.5	16.9	28.0
부산	34.5	44.6	12.0	22.0
대구	32.3	41.5	10.3	19.3
인천	36.0	45.9	14.0	23.4
광주	30.8	38.5	9.3	17.1
대전	34.6	45.2	11.3	20.9
울산	31.8	40.4	9.1	16.5
세종	34.2	39.9	10.4	17.8
경기	36.0	47.2	13.6	24.0
강원	34.4	44.3	12.6	21.1
충북	32.8	42.6	11.7	19.4
충남	32.4	41.6	11.0	20.5
전북	29.9	40.1	10.1	17.9
전남	27.8	36.7	9.3	16.6
경북	30.4	39.7	10.2	18.3
경남	31.3	40.1	10.2	18.1
제주	31.7	41.7	12.7	22.1

주: 1)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출처: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각 연도.



가족구조

가족규모의 축소 및 가족구조의 다양화는 주지의 사실이다. 〈표 II-3〉에서 살펴보듯이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꾸준히 감소하였다. 지난 2000년에는 3.1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2.7명, 2020년에는 2.3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50년에는 1.9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이상 기본가구 단위를 4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 II-3〉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원수와 세대구성, 2000~2050
(명, %)

연도	평균 가구원수	세대별 구성 비율					비친족 가구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2000	3.1	15.5	14.2	60.8	8.4		1.1
2005	2.9	20.0	16.2	55.4	7.0		1.4
2010	2.7	23.9	17.5	51.3	6.2		1.2
2015	2.5	27.2	17.4	48.8	5.4		1.1
2020	2.3	31.7	18.6	44.0	3.7		2.0
2030	2.1	35.6	21.7	37.6	2.4		2.6
2040	2.0	37.9	23.9	33.5	1.8		2.9
2050	1.9	39.6	25.0	30.9	1.4		3.1

주: 1) 1세대 가구는 부부, 부부+기타 친인척 등 동일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2) 2세대 가구는 부부+자녀, 부+자녀, 모+자녀 등 2개의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3) 3세대 이상 가구는 부부+미혼자녀+양친 등 3개 이상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4) 2020년까지는 집계 자료이며, 이후 2050년까지는 추계치임.

5) 「인구주택총조사」의 1990~2010년 자료는 현장조사 방식의 전수조사 자료이며, 2015년 이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의 집계 결과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0~2020; 「장래가구추계: 2020~2050」, 2022.

세대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1인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2세대 가구와 3세대 이상 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2세대 가구의 비율이 과반을 차지하여 대표적이었으나, 2015년부터 그 비율이 절반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1인가구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2040년부터는 1인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50년에는 1인가구의 비율이 40%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세대 가구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비친족가구의 비율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시도별로 평균 가구원수가 어떻게 변할지 살펴본 결과는 〈표 II-4〉와 같다. 평균 가구원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인천, 경기, 제주는 2010년부터 2050년까지 전국 평균보다 꾸준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들은 현재 상대적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곳인데 이러한 경향 때문에 2030년과 2050년에도 전국 평균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광주, 대구, 세종도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다.

1인가구 구성비는 전국적으로 2020년 31.2%에서 2050년 39.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II-5).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 부산, 광주, 대전을 비롯하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다. 광역도 지역에 1인가구가 집중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서울 및 광

〈표 II-4〉 지역별 평균 가구원수, 2010-2050

(명)

지역	평균 가구원수			
	2010	2020	2030	2050
전국	2.71	2.37	2.09	1.91
서울	2.74	2.31	2.05	1.93
부산	2.68	2.30	2.03	1.85
대구	2.76	2.37	2.08	1.90
인천	2.84	2.46	2.16	1.94
광주	2.78	2.37	2.05	1.87
대전	2.71	2.29	2.00	1.88
울산	2.79	2.46	2.14	1.91
세종	-	2.45	2.22	2.05
경기	2.87	2.51	2.21	2.02
강원	2.50	2.22	1.96	1.77
충북	2.58	2.27	2.00	1.82
충남	2.55	2.28	2.01	1.83
전북	2.58	2.27	1.99	1.84
전남	2.46	2.23	1.97	1.78
경북	2.45	2.21	1.96	1.77
경남	2.64	2.35	2.05	1.83
제주	2.81	2.42	2.14	1.98

주: 1)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2) 2020년까지는 집계 자료이며, 이후 2050년까지는 추계치임.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0-2050」, 2022.

〈표 II-5〉 지역별 1인가구 및 고령자가구 구성비, 2020-2050

(%)

지역	1인가구 구성비			고령자가구 구성비		
	2020	2030	2050	2020	2030	2050
전국	31.2	35.6	39.6	22.4	33.0	49.8
서울	34.4	39.0	40.8	20.9	30.2	45.3
부산	31.8	36.4	39.9	26.6	38.8	53.3
대구	30.4	35.3	39.9	23.2	35.8	51.9
인천	27.7	32.7	38.3	19.2	31.5	48.9
광주	31.9	36.9	40.3	19.5	28.9	45.5
대전	35.4	40.1	43.5	18.6	29.0	44.4
울산	27.3	31.4	37.1	18.2	33.2	52.3
세종	30.9	33.6	36.2	12.4	18.6	35.1
경기	27.2	31.6	36.6	18.0	28.4	45.9
강원	34.3	38.9	44.1	27.7	40.3	58.0
충북	34.2	38.5	43.5	24.0	35.2	52.8
충남	33.6	38.1	42.0	25.7	35.4	53.8
전북	33.3	38.0	42.3	29.4	39.5	56.3
전남	33.2	37.4	42.0	33.3	42.7	60.3
경북	33.8	37.9	41.9	29.6	41.7	59.8
경남	30.5	34.9	39.6	24.8	37.6	56.9
제주	30.7	35.0	39.3	21.3	30.1	47.4

주: 1) 고령자가구는 65세 이상으로 이루어진 가구임.

2)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출처: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20-2050」, 2022.

역시의 1인가구와 광역도의 1인가구는 연령별 구성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지역별 정책적 수요도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65세 이상으로 이루어진 고령자가구 구성비는 전국적으로 2020년 22.4%에서 2050년 49.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50년에는 전국을 기준으로 가구의 절반이 고령자가구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부터 2050년까지 부산, 대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모두 전국 평균보다 고령자가구 구성비가 높다.

특히 전남과 경북지역은 2050년에 가구의 60%가 고령자가구로 예상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전반적인 흐름은 동일하지만 지역 간의 차이가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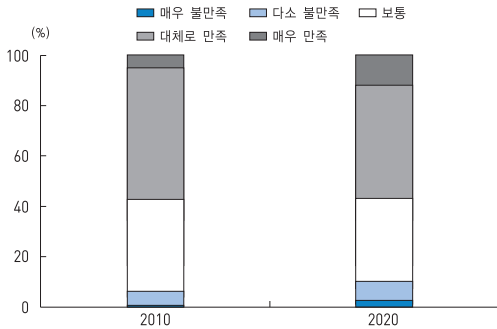
가족관계 및 돌봄

가족관계는 크게 부부관계와 부모-자녀의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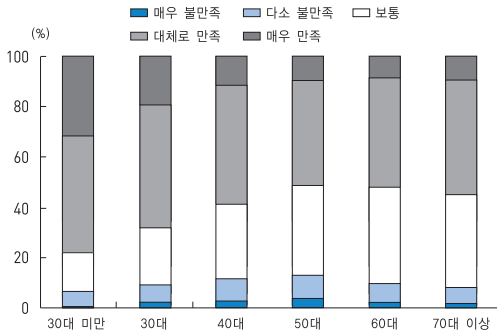


[그림 II-3] 배우자 관계 만족도, 2010, 2020

1) 전체 (2010, 2020)



2) 연령별 (2020)



주: 1) 만족도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응답 비율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II-3]은 기혼자를 대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살펴본 「가족실태조사」 결과이다.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2010년에 비해 2020년에 ‘불만족’하는 비율과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늘어났지만 전반적인 만족도 정도는 비슷하다. 응답자의 57%가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체로’ 혹은 ‘매우’ 만족하며, ‘보통’이라는 응답도 30%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인 만족도는 괜찮은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만족’ 혹은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은 약간 늘어나고 ‘만족’이라는 응답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단순한 기술통계이기 때문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았지만, 연령에 따라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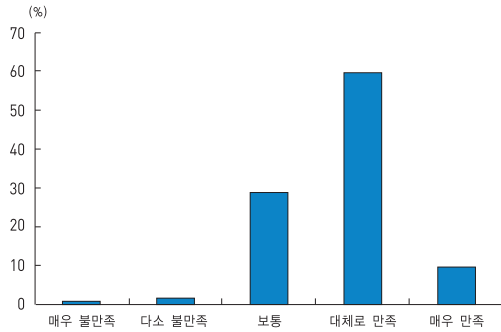
[그림 II-4]는 「가족실태조사」를 통하여 성인 자녀와 부모의 관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이다. 2010년 조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를 조사하였지만 2020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관계 만족도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2010년에는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이 69.2%로 높은 편이다. 2020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에 대하여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약간 늘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높다.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58.1%이고 어머니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70.2%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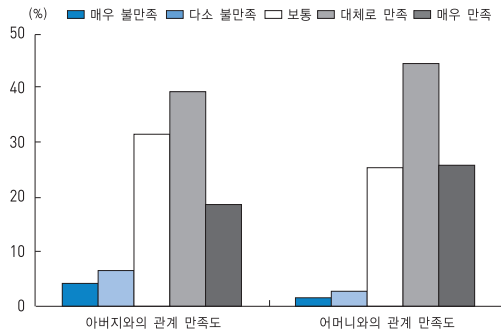
성인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는 2010년에 비해 2020년에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다소 불만족’과 ‘보통’이라는 응답은 줄고 ‘대체로 만족’과 ‘매우 만족’이라는 응답이 늘어나서 2020년에는 만족하는 비율이 63.2%를 차지한다. 성인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불만족’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지 않아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4] 부모-성인자녀 관계 만족도, 2010,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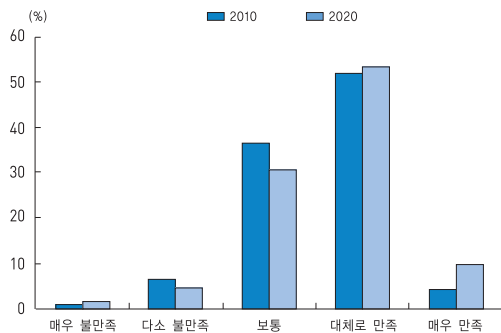
1)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2010)



2)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 (2020)



3) 성인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2010, 2020)



주: 1)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임.

2) 2020년 조사는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를, "아버지와의 관계 만족도"와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로 나누어 실시함.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각 연도.

다음으로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경제적 교환관계 살펴보았다(표 II-6).

〈표 II-6〉 부모-자녀 경제적 교환관계, 2020

	부모-자녀 경제적 교환관계 (%)					
	노부모 수혜			노부모 제공		
	정기 현금	비정기 현금	현물 지원	정기 현금	비정기 현금	현물 지원
동거자녀	56.2	79.8	80.0	19.5	33.4	41.8
비동거자녀	46.0	85.6	77.9	12.5	29.1	42.4

주: 1) 통계치는 지난 1년간 정기 현금, 비정기 현금, 현물 지원 등 각각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동거자녀, 비동거자녀와 도움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20.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자녀로부터 받는 것이 더 많다. 가령 부모의 80.0% 정도가 동거자녀로부터 현물지원과 비정기 현금 지원을 받고 56.2%가 정기적 현금 지원을 받는다. 반면 부모는 동거자녀에게 현물지원, 비정기 현금 지원, 정기 현금 지원 순으로 제공하는데, 그 비율은 각각 41.8%, 33.4%, 19.5%이다.

비동거자녀와의 교환관계도 높은 편으로 부모가 비동거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 중 비정기 현금 지원이 85.6%로 가장 높다. 현물지원도 77.9%, 정기 현금 지원도 46.0%로 동거자녀에 비해서는 약간 낮지만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다. 반면 부모가 비동거자녀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현물지원 42.4%, 비정기 현금 29.1%, 정기 현금 12.5%로 나타난다. 부모나 성인자녀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정 정도의 쌍방향적 지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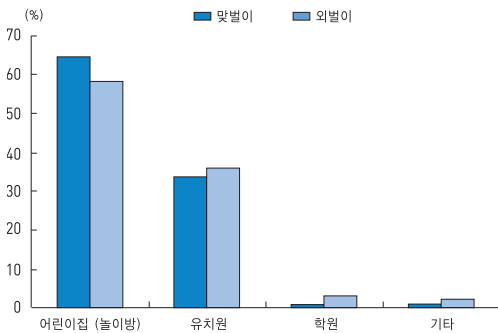
미취학 영유아 자녀 돌봄은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그림 II-5).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 중에는 어린이집(놀이방 포함) 이용이 가장 높다. 기관 이용 시간 외에 아동을 주로 돌보는 사람을 살펴보면,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어머니가 돌보는 비율이 높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대부분 어머니가 돌보고 외조부모, 친조부모, 기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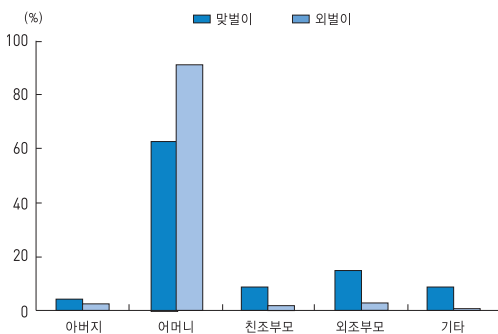
받으며 아버지는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외벌이보다는 자녀 돌봄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벌이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어머니가 돌보는 비율이 높다. 전반적으로 기관 이용시간 외에는 가족들의 협력으로 영유아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어머니의 돌봄 책임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5] 미취학 영유아 자녀 돌봄, 2020

1) 이용기관



2) 기관 이용시간 외 돌보는 사람



주: 1) 이용기관은 낮시간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기관을 말하며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다니고 있는 기관 한 곳이 어디인지를 응답한 비율임.

2) 기관 이용시간 외 돌보는 사람은 기관에 다니는 시간을 제외하고 아이를 가장 많이 돌보는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응답한 비율임.

3) 유치원은 만 3세부터 만 6세까지 입소 가능함.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2020.

가족 가치관

최근 가족에 대한 정의가 다양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삶의 형태가 늘어나면서 가족의 정의를 유연화하자는 논의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개인의 판단과 가치관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수렴하고 합의하는 과정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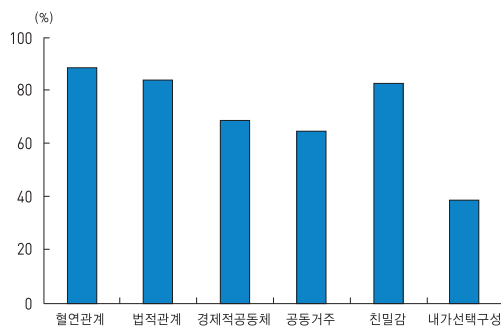
지난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서는 가족의 정의에 대한 6가지 진술을 제시하고 동의 정도를 살펴본 바 있다.

[그림 II-6]은 가족의 정의에 대해 1)혈연관계, 2)법적으로 연결된 관계, 3)경제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관계, 4)함께 거주하고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 5)함께 살지 않아도 심리적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끼는 관계, 6)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로 진술하고 동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이다.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라는 항목을 제외한 5개의 진술은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에 포함된다. 그 중 ‘혈연관계’와 ‘법적 연결관계’라는 정의는 전통적인 객관성을 가장 잘 반영한다. 그래서인지 가족을 ‘혈연관계’와 ‘법적 연결관계’라고 진술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동의 정도가 각각 89.0%, 83.7%로 가장 높다.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가족을 정의하는 데에는 ‘혈연관계’와 ‘법적 연결관계’의 규범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6] 가족의 다양한 정의에 대한 동의 정도, 2020



주: 1) 2020년에 처음으로 조사된 항목임.

2) 동의정도를 측정하는 5점 척도 항목 중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2020.

다음으로 긍정적인 동의 정도가 높은 항목은 주관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가족은 함께 살지 않아도 심리적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끼는 관계’라는 진술이다. 이에 대한 동의 정도는 82.8%이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부정적인 사건들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여전히 가족이 심리적 유대감과 친밀감을 느끼는 관계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을 ‘경제적 생계 공동체’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로 정의하는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는 각각 68.9%, 64.8%로 상대적으로 낮다. 다양해진 거주형태와 맞벌이 부부를 비롯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적인 독립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족은 내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있는 관계’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동의 정도가 38.7%로 가장 낮다. 부정적인 동의 정도 역시 40.0%로 높아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진술은 가족의 전통적인 정의를 벗어나는 새로운 정의를 함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는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부모 부양과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 ‘매우 그렇다’라는 동의 정도는 2010년과 2020년 각각 5.8%, 4.9%로 높지 않다. 반면, ‘대체로 그렇다’라는 긍정 정도는 2010년에 42.8% 수준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2020년에는 20.9%로 줄어들었다. 더불어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와 같은 부정적인 응답은 2010년 16.7%에서 2020년 42.1%로 늘었다. 나이 든 부모를 모시고 산다는 생각은 더 이상 보편적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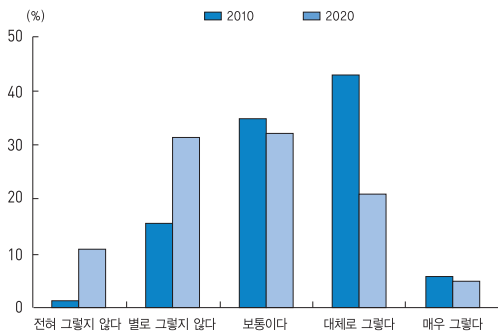
‘자식은 나이 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는 2010년 53.9%에서 2020년 39.4%로 줄어들긴 했지만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진술에 비해서는 동의 정도가 높다. 나이 든 부모님을 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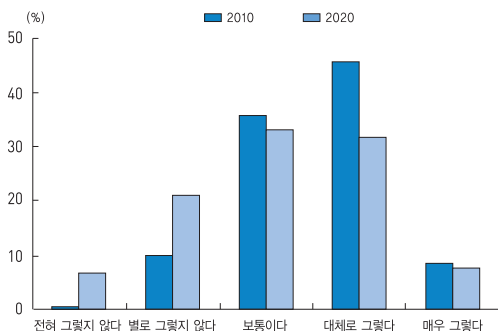
고 사는 것에 대한 규범성은 약해졌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 부양을 해야 한다는 가치관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7]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 2010, 2020

1)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2)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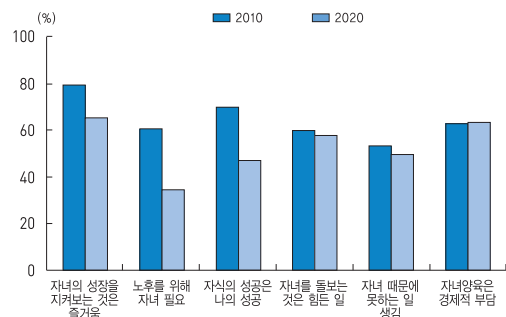
[그림 II-8]은 「가족실태조사」에서 2010년과 2020년에 자녀와 관련한 다양한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1)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2)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3)자식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4)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 5)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 6)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6개의 진술이다.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2010년에 비해 2020년에 긍정적인 동의 정도가 약간 줄어든긴 했지만,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이 각각 79.0%와 65.2%로 다른 진술에 비하여 가장 높다. 일반적으로 자녀양육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라는 진술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는 2010년 60.5%에서 2020년 34.6% 정도로 줄었다. 이 진술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도 2010년 9.3%에서 2020년 32.7%로 늘었다. 자녀를 노후에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가치관은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라는 진술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는 2010년 69.8%에서 2020년

[그림 II-8]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2010, 2020



주: 1) 동의정도를 측정하는 5점 척도 항목 중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46.9%로 줄었다. 과거에 비해 자녀와 자신의 성공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줄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3가지 진술들은 모두 자녀양육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다. ‘자녀를 돌보는 일은 힘든 일이다’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정도가 2010년 59.8%, 2020년 57.6%로 비슷하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도 2010년과 2020년 각각 62.7%, 63.1%로 비슷하다.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기쁘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높지만, 자녀를 돌보는 일의 힘들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느끼는 현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 있다’라는 진술에 대한 동의 정도는 2010년 53.3%에서 2020년 49.4%로 약간 줄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 비율을 합하면 2010년 13.0%에서 2020년 18.9%로 늘었다. 자녀 때문에 희생을 한다는 생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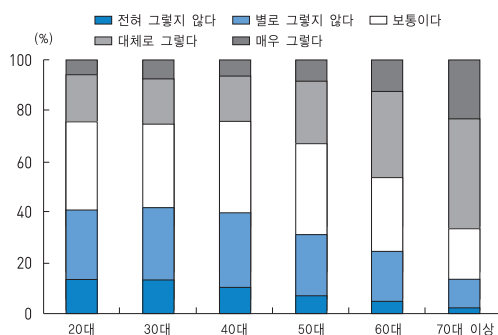
지난 2020년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집단에 따라 자녀와 관련된 진술에 대한 응답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 연령에 따라 차이가 관찰되었다. 그중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와 ‘자녀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다’라는 진술에서 연령별 차이가 두드러져서 [그림 II-9]에 제시하였다.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20대부터 50대까지 ‘보통’이라는 중립적인 응답이 가장 높았다면, 60대 이상은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다. 특히 70대 이상은 긍정적인

응답이 60% 이상으로 나타나서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를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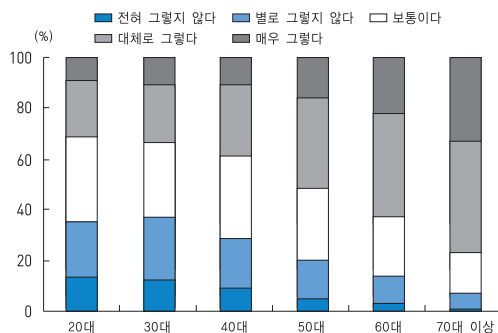
‘자녀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라는 진술에 대한 응답도 연령에 따라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30대 이하의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응답을 보인다면, 40대부터는 동의하는 응답 비율이 높아진다. 연령에 따라 자녀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9] 연령별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2020

1) 노후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다



2) 자녀의 성공은 나의 성공과 같다



출처: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원자료, 2020.



맺음말

최근에 가족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혼인과 출산 감소 및 지연, 비혼출산과 동거 증가, 1인가구 증가, 가족 관련 가치관 변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글에서도 가구규모의 축소와 가구구조의 다양화, 1인가구와 1세대 가구 증가, 혼인과 출산의 지연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1인가구와 고령자가구 구성비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가 포착되었다. 지역별 현상의 차이는 지역의 정책적 수요 및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앞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만 미취학

아동 돌봄은 어머니의 경제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여전히 어머니가 주로 담당하거나 가족들의 지원에 의존적이다.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돌봄 이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가족이 노인 돌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가족의 정의와 부모 부양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은 변화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가치관도 혼재한다. 이런 과도기적인 특성을 지닌 시기에는 가치관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의견도 포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